

한일간 미래지향적 인적 교류에 대한 고찰

2010년대에 '한일·일한 신시대의 도래'라는 말이 양국 언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새로운 시대적 진전은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사건이나 자연재해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국제관계는 그리 간단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신시대란, 양국 지식인이 공동연구를 통해 정리한 '한일신시대를 위한 제안'에서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시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에 대한 공통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현재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의 미래를 공동설계하기 위해 과거, 현재, 미래를 유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일 양국이 선린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글로벌 질서를 바라보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호와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하나의 길이 한일 양국의 넓고 깊은 인적 교류라는 관점에서 청소년교류사업과 교육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소개한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안 2차 보고서에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항목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일 간 미래지향을 위한 인적 교류에 대해 단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일 인적 네트워크 과제

그러면 먼저 한일 인적 네트워크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와 선진시장경제, 다원적 사회문화제도를 성공적으로 발전 정착시킨, 비서구지역에서는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양국 간 방문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적 왕래를 기록하는 획기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날 한일관계의 인적 네트워크에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우선은 정치권의 네트워크가 현저하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양국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물밑에서 조정을 해왔지만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은 은퇴와 세대교체로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날이 다층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한일관계를 생각하면 몇몇 거물급 정치인들이 한일간의

모든 문제를 통제하기가 더 이상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차원의 현실을 생각하면 양국 정치인들의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미 한일 간에는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향후 방향은 단순한 교류의 확대보다는 '한일 공동의 미래비전'을 논의하고 이를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복합적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한일 간에 복합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정치 분야에서의 마찰과 갈등보다 대화와 협력이 우선시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한일 협력이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자본·정보·기술 및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한일 공동시장이 실현되고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향한 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발전과 함께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대하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미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오늘 강연 주제에 맞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간 교류의 균형

먼저 세대 간 교류의 균형에 대해서입니다. 지금은 양국 관계를 지금까지 이끈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사고로 상대국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가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이루려는 역할은 젊은 세대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갈수록 늘어나는 시니어 세대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각 층의 각각의 교류가 다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간 교류의 균형

둘째, 지역간 교류의 균형은 그동안 도쿄-서울처럼 중앙 집중적인 교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각 지방 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 단체와 기업 등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한일 양국에는 지방분권과 지방주권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경제분야

교류 내지 경제통합에 이르기까지를 목표로 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관광이나 경제교류, 인적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려는 의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려 한일 양국 지역간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 교류의 균형

셋째, 단기적 달성과 장기적 목표를 함께 고려한 시기적 교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일관계가 때로는 쉽게 악화되기 쉬운 점을 생각하면 가능한 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본래 인적 네트워크의 성과라는 것은 눈에 잘 띄지 않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장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를 것이 아니라 단기와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대국적 관점에서 양국의 공동 비전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일 공동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한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그것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 질적, 양적 측면에서의 각 분야 진행방식

이러한 세 가지 요소와 함께 인적 교류에 있어서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체류기간'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교류 내용으로 보면 단기체류형은 주로 양적인 측면이 강하고 장기체류형은 질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나 취업 등은 질적인 교류이면서 장기체류형이고 관광, 문화 등의 교류는 양적으로 확대되는 단기체류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질적, 양적 교류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적 교류가 복합적으로 얽혀 오늘의 한일관계를 유지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핵심적인 각 분야의 인적 교류의 저변을 확대하고 뿌리 깊은 민간 교류를 함으로써 복합적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육, 취업, 관광, 문화, 지방, 청소년의 6가지 분야의 교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의 진행 방법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유학이라는 형태로 양국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학생지원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도에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 수는 18,338명이며,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일본인 유학생 수는 7,235명입니다. 양국간에 2.5배의 언밸런스가 있습니다.

유학은 단기간의 어학연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인 동시에 이는 장기체류형에 해당하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사회적 리더를 육성하는, 글로벌 레벨의 고도 인재의 육성에 있어서 유학은 유효한 교육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는 획기적으로 상호 유학생 교류 확대를 목표로 하는 '한일 10만명 유학생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습니다. 교환학생제도, 국비장학생제도, 어학연수나 정규유학생의 사비유학제도, 학점상호인정제도, 부정기적인 각종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를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취업 분야 진행 방법

다음은 취업 분야 진행 방식입니다. 이것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노동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일 양국 기업이 글로벌 인재를 찾는 시대인 만큼 특히 질적 수준이 높은 인재들의 국가간 상호 국가 취업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또, 유학 후의 취직은, 해당 나라에서의 생활을 정착, 정주시키는 의미까지 포함하므로 이것은 인적 교류의 정점을 장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술직과 서비스업의 취업도 한일 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과 고령화 현상 속에서 국가간 수요에 의한 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학을 통한 취업 외에도 기술 연수나 단기 어학 연수, 워킹 홀리데이 활동 등을 통해 상호 국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의 직업 선택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우리는 '한일 취업 10만명 프로젝트'의 실현을 제안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학을 통한 현지 취업, 양국 언어 습득자의 상대국 취업, 기술 기능 보유자의 상대국 취업, 대학생의 해외 인턴십을 통한 졸업 후의 상대국 취업, 제3국에의 개별 및 공동 투자 기업에 있어서의 사원 채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민간 부문에서도 실행이 가능한 것이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관광 분야 진행 방법

세 번째, 관광 분야는 이미 산업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는 분야입니다. 한일 양국 간에는 2018년도에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의 왕래가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체된 상황입니다. 다행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가운데 이달 11일부터 일본의 입국 비자가 완화되면서 한국 관광객이 몰릴 전망이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10월 말까지 관광 비자가 면제된 한국으로 가는 일본인 관광객도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거 1,000만명 실적을 뛰어넘는 관광 교류가 기대됩니다.

인적 교류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관광을 넘어서는 분야는 없으며 단기체류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양국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학이나 취업 등의 다른 교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 중학생·고등학생의 수학여행과 홈스테이는 더욱 질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확대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는 양국의 다양한 교류에 홈스테이를 접목하여 '풀뿌리 교류'라 할 수 있는 개인 대 개인, 가족 대 가족의 교류를 확대시키기를 기대합니다. 그 후 이어지는 2차적인 상호 방문, 지속적인 지인관계 교류는 민간 교류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 분야 진행 방법

네 번째, 문화 분야는 이미 폭넓은 장르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현대문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음식과 패션, 메이크업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한일 양국 시민 차원에서 상호 이해와 우호를 다지는 하나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문화를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별도로 개인 또는 동아리 차원의 문화교류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장르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각 지자체와 교류단체 등에서 선도한다면 '보여주기식 문화활동'이 아닌 취미나 동호 차원에서 체험형으로서 '함께하는 문화활동', '함께 즐기는 문화활동'이 시민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소년, 가족단위, 중년층과 노년층까지 확대되면 다양한 장르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지방 분야의 진행 방법

다섯 번째, 지방 분야에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의 중앙 집권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과 지방, 또 지방과 중앙이 교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류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일본에는 '지자체 국제화 협회'가 조직되어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조직되어 도쿄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어 선도적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들 조직이 한일 양국 지방정부나 단체의 요청을 받고 상대국 지방정부나 단체에 교류를 타진하는 것이 스마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두 나라의 조직은 이미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유학, 취업, 관광, 문화, 지방, 청소년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인적 교류를 추진한다면 그 영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생활 체육에 대해서도 마을이나 지역의 스포츠클럽 수준까지 교류를 넓혀간다면 매우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 '자발적인 스포츠 교류'가 꽃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미래지향을 위한 청소년 교류

마지막입니다. 여기서는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교류는 미래지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젊은 세대가 '한일 신시대'의 개념을 도입한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류는 무한히 중요하다는 가치관 아래 각계 각층이 모두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의 정규 유학 분야는 일본 측이 조금 앞서서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정도이지만, 구미나 중국 등에 비하면 한일 양국은 아직 이 분야의 교류를 단행하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글로벌 교육의 일환으로 이 분야의 개척도 필요합니다.

중고등학교 단위의 수학여행 활성화나 교환유학도 학교 선생님들이 의지를 가지셔야 실행이 가능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입장은 조금은 정치에 영향을 받기 쉬운 편이지만 용기를 내는 것과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욱 '풀뿌리' 교류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단체가 추진했던 '단체로서의 청소년 교류'는 질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의 학교 단위나 개인, 가족 레벨로의 풀뿌리 교류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학교를 중심으로 서로의 동네나 이웃끼리 그룹을 만들어 상대국의 학생이나 가족을 홈스테이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지자체 단체 등이 중개를 도와주면 서로 교류를 희망하는 정보를 얻기 쉽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국의 중고등학교의 일본어 교사나 한국어 교사를 중심으로 홈스테이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홈스테이는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 또는 가족 간의 민간 교류의 저변을 보다 확대하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간의 스포츠 교류는 요즘 많이 볼 수 없지만, 이것은 좋아하는 운동을 함께 한다는 친근감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의 호감도가 높은 이 분야의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개인 차원에서 한일 청소년 교류의 재미있는 현상으로서, 때로는 기계 번역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일본어나 한국어 또는 영어로 주고받는 온라인 채팅을 통한 친구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교류

기회를 늘려주는 데도 책임 있는 관공서나 단체가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제교류기금상 수상을 기념하여 뭔가 의미 있는 강연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조금 고민했지만,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일 신시대'라는 말 그대로 21세기 신시대가 한일 양국 간에 정착되기를 희망하고, 또 민간의 폭넓은 분야에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사단법인 한일협회 이사장 송부영